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중심으로

전 미 경(동국대 교수)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술·가정 교과서는 가족 및 가정생활 그 자체를 다루는 것에 목적을 둔 중등교육의 유일한 교과로, 2007년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은 ‘가족 집단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강조하면서 8학년 중단원의 하나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정의와 의미, 가족의 형태 및 가족생활의 다양화, 가족의 기능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내용과 함의를 추적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과 11종의 기술·가정 교과서(8학년)를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분석의 초점이 용어의 출현빈도나 분량과 같은 양적인 측면을 넘어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의미의 발견에 초점을 두는 연구방법이다. 연구절차는 먼저 연구 초점이 되는 분석 단원 선정에 대해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였고, 이렇게 하여 선정된 8학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의 11종 교과서를 하위 범주별로 분석하는 과정을 밟았다.

연구결과 및 결론

11종 교과서는 가족을 대체로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인간이 접하는 가장 최초의 집단, 사회의 기본단위, 애정적 집단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진정한 울타리’, ‘행복의 근원지’ 등 가족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적지 않은 교과서에서 모든 가족이 개인에게 사랑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준다는 통념을 읽을 수 있었다.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의 ‘다양화’를 강조하여 핵가족 이외의 가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들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어 특정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가족의 기능은 성, 자녀 출산, 자녀의 양육·교육·사회화, 경제(생산과 소비), 애정, 정서, 보호, 휴식·여가·오락, 문화·전통 계승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족 가치관의 경우, 가부장제의 약화 및 민주적인 가족관계의 강화, 개인주의의 강화, 성별 이분화의 약화 및 양성평등가치관의 강화 등이 강조되었다. 중등교과에서 기술·가정 교과가 가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교과라고 할 때, 가족에 대한 기술은 핵가족을 ‘정상’ 혹은 ‘강한 가족’으로 전제하지 말아야 하며 계몽적·당위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가족생활과 가족과정에 주목한 실천적 관점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적지 않은 교과서가 가족은 개인과 사회의 소중한 집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서는 건강한 가족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가정교과에서의 ‘가족’에 대한 접근은, 건강한 가족역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의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